

팔공산 ‘夫人寺’의 탄생

이 영 호*

- I. 머리말
- II. 사원의 명칭
- III. ‘夫人’ 칭호의 사용과 創寺 시기
- IV. 성덕왕대 ‘夫人寺’ 창건의 배경
- V. 맺음말

국문초록

부인사는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신라 시대부터 존재한 고찰로 오늘날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화사와 함께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중요하다.

부인사의 창건 경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문헌자료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유적·유물들을 통해 신라·고려 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한 동안 대찰로서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부인사가 크게 주목된 것은 고려시대에 초조대장경 봉안과 관련해서였다. 부인사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초조대장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부인사의 처음 명칭과 창건 경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배풀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온 부인사의 창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leeyho@knu.ac.kr

부인사의 명칭은 符仁寺, 夫人寺, 夫人之寺 夫仁寺, 夫仁山寺 등 여러 표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헌자료와 금석문, 명문와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정확한 표기는 줄곧 夫人寺였다. 符仁寺, 夫仁寺 등의 예도 있었지만, 이는 신라시대 부인사의 성격이 변질된 후대의 표기로 파악되었다.

夫人寺가 신라시대의 명칭이라면, 처음 창건시의 이름은 ‘△△夫人寺’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夫人’의 실체를 밝혀, 부인사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3째 딸로 김유신의 처가 된 智炤夫人의 원당으로 추론하였다. 지소부인은 말년에 비구니가 되고, 성덕왕대에 ‘부인’으로 책봉되었거니와, 부인사의 창건시기도 성덕왕대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성덕왕이 부인사를 창건하고, 부인사가 팔공산 자락에 건립된 것은, 이 지역이 김유신의 세력 기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 주제어

부인(夫人), 부인사(夫人寺), 성덕왕(聖德王), 지소부인(智炤夫人),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 팔공산(八公山)

I. 머리말

부인사는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신라 시대부터 존재한 고찰로 오늘날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초조대장경을 봉안한 사찰로 알려져 중요성을 더한다.

최근 부인사는 초조대장경 봉안과 관련하여 다시 주목을 받았다. 2011년 이 초조대장경 조성 1,000주년을 맞이한 해였기 때문이다. 마침 대구에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열려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각 학술단체, 박물관, 방송사 등에서는 부인사 관련 학술대회와¹⁾ 초조대장경 특별전을²⁾ 열고, 특집 프로그램을³⁾ 제작하였다. 부인사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는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符仁寺가 오늘날의 ‘팔공산 부인사’인가 하는 것과, 개경에서 조판한 대장경을 먼 팔공산에 봉안한 시기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부인사의 명칭과 창건 경위에

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33차 전국학술대회, 『符仁寺藏 高麗大藏經의 再照明 -2011년 세계인의 육상축제와 함께하는 대구의 문화유산-』, 2008.5.30.

한국중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학술회의,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2009.9.11.

(재)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개최, 경남발전연구원 주관,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천년 고려대장경, 그 가치의 재발견』, 2010.11.19.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大藏經：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I·II, 2011.6.27~28 등.

각각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위의 발표 자료집이나 재정리하여 수록한 관련 학술지 참조.

2) 경북대학교박물관·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대장경, 천년의 염원(2010 박물관 기획전)』,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국립고궁박물관, 『初雕大藏經：천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초조대장경 판각 천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2011.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 고려대장경(초조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 특별전)』, 2011.

호림박물관·성문화재단,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2011.

도록은 발간하지 않았지만,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고려 천년의 귀향, 초조대장경’(2011.7.19~9.18) 특별전도 있었다.

3) 대구 MBC 문화방송, EBS 교육방송, SBS 서울방송, KBS 등.

대해서는 큰 관심이 베풀어지지 못하였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글에서 부인사의 창건에 대해 간단히 살핀 적이 있다. 대구 지역의 고대 불교를 살피면서 팔공산 부인사를 주목하고⁴⁾ 달구벌 천도를 다루면서 부인사 명칭에 대해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⁵⁾ 그러나 부인사를 전문으로 한 글이 아니다 보니 깊이 있게 논하지도 않았고, 부인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작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의 창건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의 주장을 실마리로 하여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부인사에 관한 문헌자료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상황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문헌자료와 함께 부인사지에서 출토된 신라·고려·조선 시대의 기와명문, 海印寺藏 불경 목판에 새겨진 관련 기사, 고승비문에 언급된 관련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원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한다. 나아가 ‘夫人’이란 寺名을 사용한 이유와 창건 시기, 사원 창건의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4) 李泳鎬, 「大邱地域의 古代佛敎 -八公山을 중심으로-」 『尙州文化研究』 13, 상주대, 2004, pp.57~58.

5) 李泳鎬, 「신라의 달구벌 천도」 『韓國古代史研究』 36, 2004 ;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p.410 주) 101.

6) 팔공산 부인사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윤곤, 「大邱 符仁寺藏 高麗大藏經板과 그 특성 -『佛名經』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39, 영남대, 2008.

남권희, 「南禪寺 初彫大藏經의 書誌的 分析」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문경현,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佛敎와 歷史』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한국불교연구원, 1991.

윤용혁, 「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정동락,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 『民族文化論叢』 39, 2008.

鄭永鎬, 「八公山 符仁寺」 『考古美術』 5(제1권 5호), 1960.

秦弘燮, 「八公山 符仁寺址의 調査(新羅 五岳 調査記 其一)」 『考古美術』 53(제5권 12호), 1964.

최연주, 「符仁寺藏 『高麗大藏經』의 호칭과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최정환, 「총론: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II. 사원의 명칭

부인사 관련 문헌자료는 신라시대의 것은 없고, 고려·조선시대의 기록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고려시대의 자료는 매우 적고, 관찬사서나 문집 등은 거의 모두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완하고 금석문 자료를 추가하면서, 사원 명칭의 표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符仁寺

(1) (명종) 10년(1180) 6월 을유에 큰비가 내리니 東京 符仁寺 北山에 큰 물이 솟아나 물에 잠기고 떠내려 간 寺屋이 80여 칸이고 익사자가 9인이었다.⁷⁾ (『高麗史』 권53, 志7, 五行1, 水)

(2) (신종 6년 : 1203) 최광의가 또 아뢰기를, “興州의 浮石寺·符仁寺 등의 사원과 松生縣의 雙岩寺의 僧徒들이 난을 일으키려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병마사에게 명해 이들을 鞠問하고 섬으로 유배 보냈다.⁸⁾ (『고려사』 권22, 열전3, 丁彦真)

(3) (신종 5년 : 1202) 경주의 別抄軍이 永州와 본래 원한이 있었다. 이 달에 雲門의 賊과 符仁寺·桐華寺 두 절의 僧徒들을 이끌고 영주를 쳤는데, 영주 사람 李克仁·堅守 등이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성 밖으로 뛰어나와 싸우니, 경주 사람들이 패하여 달아났다.⁹⁾ (『高麗史節要』 권14, 神宗

최태선, 「고고자료로 본 부인사지의 현황과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한기문, 「고려전기 부인사의 위상과 初彫大藏經의 소장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 八公山史蹟地表調査報告書』, 198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 續集』, 1991.

팔공산 부인사·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자료집 : 부인사의 歷史와 文化』, 2009.

7) “十年六月乙酉 大雨, 東京符仁寺北山, 大水湧出, 漂沒寺屋八十餘間, 溺死者九人”

8) “匡義又奏, 興州浮石·符仁等寺, 及松生縣雙岩寺僧徒謀亂, 命兵馬使鞠之配島”

임술 5년 겨울 10월)

(4) (신종 6년 : 1203) 9월에 崔匡義가 급히 아뢰기를, “興州의 浮石寺・符仁寺 등의 사원과 松生縣 雙巖寺의 僧徒들이 난을 일으키려 합니다”라고 하므로, 병마사에게 명해 국문하고 섬으로 유배 보냈다.¹⁰⁾ (『고려사절요』 권 14, 神宗 6년)

(5) 특별히 『金剛般若(금강반야바라밀경)』를 조성하여 인출하여 널리 보급하는 이는 貞祐 2년 갑술년(고종 원년 : 1214) 10월 어느 날 道人 迅機이며, 글을 지었습니다. 無求居士 周通富가 글씨를 썼고, 群生寺의 주지인 重大師 探古가 재물을 시주하여 경판을 간행하였으며, 符仁寺의 大師 淸守와 孝如가 경판을 새겼습니다.¹¹⁾ (海印寺藏 『金剛般若波羅密經』 6판 12장)

(6) 심하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고 혼암함도 또한 禽獸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에는 佛像과 梵書를 마구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符仁寺에 소장된 大藏經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를 걸쳐서 이런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諸佛多天의 大慈心에 대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¹²⁾ (『東國李相國集』 권25, 雜著, 「大藏刻板君臣祈告文」)

9) “慶州別抄軍，與永州素有隙，是月，乃引雲門賊，及符仁桐華兩寺僧徒，攻永州，永州人李克仁堅守等，率精銳，突出城與戰，慶州人敗走”

10) “九月，崔匡義馳奏，興州浮石・符仁等寺，及松生縣雙岩寺僧徒謀亂，命兵馬使推鞠配島”

11) “特雕金剛般若” 印行廣布者」貞祐二年甲戌十月日」道人迅機誌」無求居士周通富書」群生寺住持 重大師探古 施財刊板」符仁寺大師 淸守 孝如 刻”

이 경판의 판독과 해석은 崔永好, 「1214년에 조성된 해인사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의 역사・문화적 성격」 및 최연주, 「고려시대 『金剛般若波羅密經』 彫成 현황과 書誌의 성격」 이상 『石堂論叢』 61,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5 참고.

12) “甚矣達旦之爲患也。其殘忍凶暴之性，已不可勝言矣。至於癡暗昏昧也，又甚於禽獸，則夫豈知天下之所敬，有所謂佛法者哉。由是凡所經由，無佛像梵書，悉焚滅之。於是，符仁寺之所藏，大藏經板本，亦掃之無遺矣。嗚呼，積年之功，一旦成灰，國之大寶喪矣。雖在諸佛多天大慈之心，是可忍而孰不可忍耶”

(7) 스님의 나이 13세에 화엄종 盤龍社 주지인 一非大師를 은사로 하여 머리를 깎았으며, 19세에 三品選에 합격하였다. 金生寺・德泉寺・符仁寺・開泰寺 등 10여 사원의 주지를 두루 역임하였다.¹³⁾ (『水原 彰聖寺眞覺國師碑銘』『韓國金石全文』中世(下), 1984, p.1236)

(8) 華嚴宗師 友雲이 (중략) 귀국하자 그 아우 曹溪 岑公과 함께 이름이 나서 크게 공민왕의 知遇가 되어 명찰의 주지를 역임하고, 노경에는 慶州 檀庵에 물러 앉아 산수간에서 한가히 5,6년을 노니는데, 국가가 강제로 大公山 符仁寺의 주지를 삼았으니, 실로 거찰이었다.¹⁴⁾ (『三峰集』 권3, 序 「送華嚴宗師友雲詩序」 : 『東文選』 권89, 序 「送華嚴宗師友雲詩序」)

(9) 「遊符仁寺分韻各賦」 戊申 (『慕堂集』 권1, 詩)

(10) (신종 5년 : 1202) 12월 경주에서 도적이 일어나 大將軍 金陟侯 등을 보내어 토벌하였다. 이에 앞서 경주 別抄軍이 永州(지금의 永川) 사람과 불화가 있어, 雲門의 賊黨과 符仁寺・桐華寺 등 사원의 중을 불러들여 永州를 공격하였다.¹⁵⁾ (『東史綱目』 제10, 상)

2. 夫人寺

(1) 夫人寺金堂(부인사지 출토 기와, 통일신라시대)

(2) 夫人寺(부인사지 출토 기와, 12~13세기)

(3) 桐華寺는 公山에 있다. 고려 김훤이 지은 중 弘眞의 비명이 있다. 地藏寺는 수성현에 있다. 고려 김항원의 기문이 있다. 仙槎菴은 마천산에 있다. 암자 곁에 최치원이 벼루를 씻던 못이 있다. 夫人寺・慈華寺・把溪寺・菩提

13) “(大)師年十三, 投華嚴盤龍社主一非大師, 薙髮, 十九登三品選, 歷住金生・德泉・符仁・開泰等十餘寺”

14) “華嚴宗師友雲, (중략) 既老, 優游於山水間者五六年, 國家強起之, 住于大公山之符仁寺, 實巨刹也”

15) “十二月, 慶州盜起, 遣大將軍金陟侯等, 討之. 先是, 慶州別抄軍, 與永州(今永川)人有隙, 引雲門賊黨及符仁桐華兩寺僧人, 攻永州”

寺는 모두 公山에 있다.¹⁶⁾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6, 慶尙道 大丘都護府 佛宇)

(4) 순치 17년(1660) 정월 어느 날 경상도 대구지 팔공산 夫人寺에서 판을 새기다.¹⁷⁾ (『禪門祖師禮懺儀文』)

(5) 康熙二十六年...夫人寺緣化(부인사지 출토 설형 막새기와, 1687)

(6) 夫人寺는 신라 성덕왕이 창건하였으며, 일명 大伽藍이라 하였다.¹⁸⁾ (『梵宇考』)

(7) 夫人寺는 대구부 북쪽 50리 公山에 있다. 신라 성덕왕이 창건하였다. 일명 大伽藍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고쳐 庵이 되었다. 속암인 하선암과 함께 동화사에 속해 있다.¹⁹⁾ (『大丘府邑誌』 佛宇 : 1832년경 편찬된 『慶尙道邑誌』 소재)

3. 夫人之寺

(1) 夫人之寺(부인사지 출토 기와, 12세기 하한)

4. 夫仁寺

(1) (숙종 5년: 1679) 大丘 夫仁寺의 土佛像이 금년 2월 9일에 땀을 흘렸는데, 온몸으로 다 흘렸으며, 끊임없이 계속 흘리다가 그 이튿날에야 비로소 그쳤다고 道臣이 狀啓를 올렸다.²⁰⁾ (『肅宗實錄』 5년 기미 3월 병신)

16) “桐華寺在公山. 有高麗金暉所撰僧弘眞碑銘. 地藏寺在壽城縣. 有高麗金黃元記. 仙槎菴在馬川山. 菴傍有崔致遠洗硯池. 夫人寺・慈華寺・把溪寺・菩提寺俱在公山”

17) “順治十七年正月日慶尙道大丘地八公山夫人寺開板”

18) “夫人寺 新羅聖德王勅建, 一名大伽藍”

19) “夫人寺在府北五十里公山. 新羅聖德王勅建. 一名大伽藍, 今革爲庵. 屬庵下仙庵并屬桐華寺”

20) “大丘夫仁寺土佛像, 今二月初九日發汗, 渾身皆出, 至翌日始止, 道臣狀聞”

(2) (숙종) 5년(1679) 기미 3월에 대구 夫仁寺 불상에서 2일부터 9일까지 땀이 났다.²¹⁾ (『練藜室記述』 別集 권15, 天文典故, 災祥)

(3) (1688년) 새벽부터 찬바람이 불었다. 개었다 흐렸다 하다가 밤에 또 바람이 불었다. 夫仁寺의 스님 靑湜이 와서 옥산리의 司果 丁益亨의 편지를 전해주고, 약으로 쓸 콩 두 되와 고기반찬 조금을 주었다.²²⁾ (丁時翰, 『山中日記』 하권, 戊辰年 8월 초8일 戊申)

(4) 興源이 李騎省과 함께 公山에 들어가 먼저 우리 선조 溪亭의 舊址를 보고, 夫仁寺와 桐華寺 사이에서 轉輾遊息하였다.²³⁾ (『百弗菴集』 권2, 書「與曹仲吉」)

(5) (曹公과) 이별한 뒤에 汝浩와 함께 집을 꾸려 夫仁寺로 향했는데, 그의 아들 周鎭公普가 우리를 따랐다. 해질 녘에 宗智村에 묵고 다음 날 夫仁寺로 올라갔다. 산세가 웅장하고 시야가 탁 트였다.²⁴⁾ (李象靖, 『大山集』 권42, 雜著, 「南遊錄」 戊辰(1748))

(6) 夫仁寺는 府의 북쪽 50리 公山에 있다. 신라 성덕왕이 창건하였다. 일명 大伽藍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고쳐 庵이 되었다. 屬庵인 下仙庵과 함께 桐華寺에 속해 있다.²⁵⁾ (『大丘府邑誌』 佛宇 : 1895년경 편찬된 『嶺南邑誌』 소재)

(7) 桐華寺는 팔공산에 있다. 고려 때 金暄이 지은 승려 弘眞의 비명이 있다. 地藏寺는 최정산에 있다. 고려 때 金黃元의 記文이 있다. 仙槎菴은 마천산에 있다. 암자 곁에 최치원이 버루를 씻던 연못과 爛柯臺, 武陵橋가 있다. 뒤에 伊江書院을 세웠다. 夫仁寺는 팔공산에 있다. 慈華寺는 지금 없어졌다.

21) “五年己未三月，大丘夫仁寺佛像，自初二至初九出汗”

22) “自曉寒風。作晴或陰夜又風。夫仁寺僧靑湜，來傳玉山里丁司果益亨書，及藥黑太二升·肉饅小許”

23) “興源與李騎省入公山，先看吾先祖溪亭舊址，轉輾遊息於夫仁桐華間”

24) “既別，與汝浩束裝，向夫仁寺，其子周鎭公普從之。薄暮宿宗智村，翼日上夫仁。山勢雄偉，眼界明豁”

25) “夫仁寺在府北五十里公山。新羅聖德王勅建。一名大伽藍，今革爲庵。屬庵下仙庵并屬桐華寺”

把溪寺는 팔공산에 있다.菩提寺는 팔공산에 있다.〈新增〉雲興寺는 최정산에 있다.龍淵寺는 비슬산에 있다.湧泉寺는 비슬산에 있다.²⁶⁾ (『輿地圖書(下)』大丘 大丘鎭 寺刹)

(8) 「夫仁寺冥府殿移建記」 및 「夫仁寺冥府殿移建上樑文」(『仁嶽集』 권2 : 『韓國佛教全書』 제10권)

(9) 歲次庚寅三月 八公山夫仁寺 蓋瓦 觀音殿 (부인사지 출토 설형 막새기와, 1890년 추정)

5. 夫仁山寺

(洞眞大師 慶甫는) 곧바로 夫仁山寺로 가서 삭발하고 교학의 숲에 의지해 있길면서도, 참선의 산에는 즐겨 노닐지 아니하였다.²⁷⁾ (「光陽 玉龍寺洞眞大師寶雲碑」『韓國金石全文』中世 上, p.369)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름은 符仁寺, 夫人寺, 夫人之寺, 夫仁寺, 夫仁山寺의 다섯 유형으로 나타났다.²⁸⁾ 이 가운데 夫人之寺와 夫人寺 명문 기와는 부인사지 전역에서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 夫人之寺는, 통일신라시대 명문 기와의 ‘靈廟之寺’가 靈廟寺를 가리키듯이,²⁹⁾ 夫人寺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또한 「光陽 玉龍寺洞眞大師碑」의 夫仁山寺는 팔공산 夫仁寺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그렇다면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의 3가지 유형으로 줄어들

26) “桐華寺在八公山. 有高麗金暄所撰僧弘眞碑名. 地藏寺在最頂山. 有高麗金黃元記. 仙槎菴在馬川山. 菴傍有崔致遠洗硯池·爛柯臺·武陵橋. 後建伊江書院. 夫仁寺在八公山. 慈華寺今無. 把溪寺在八公山. 菩提寺在八公山. 〈新增〉雲興寺在最頂山. 龍淵寺在琵琶山. 湧泉寺在琵琶山.”

27) “直往夫仁山寺, 落采因栖學藪, 未樂禪山”

28) 李能和, 「佛教와 朝鮮文化」『별건곤』 제12·13호, 1928.5.1에서는 符印寺로 쓰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인사(符仁寺)」『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에서는 符印寺로 쓴 예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사료에서 그러한 예를 찾지 못하였다.

29) 국립경주박물관,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의 記錄과 筆跡-』, 2002, p.113. 密谷之寺, 万正之寺, 因井之寺 등의 통일신라시대 명문 기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수 있다. 「南原 深源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에서 深源山寺가 深源寺이고, 「聞慶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서 鳳巖山寺가 鳳巖寺이며, 「奉化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에서 石南山寺가 石南寺이듯이, 夫仁山寺 또한 夫仁寺로 추정함에 이론이 없다. 그러나 사원의 명칭을 ‘夫仁’이라 함은 다소 어색하다. ‘夫人’의 誤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신라 말기에 나타난 표기이거나 비석이 찬술된 고려 초기의 표기일 것이다.³¹⁾ 고려시대의 일반적 표기인 符仁寺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符仁寺’란 명칭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동국이상국집』, 『동사강목』 등과 고려시대에 제작된 경판이나 금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는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사서로서 의미가 크다. 『동사강목』은 조선 후기 안정복이 편찬한 강목체 통사이다. 해인사 소장 『金剛般若波羅密經』은 1214년에 조성한 목판으로 符仁寺란 이름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 당대의 기록이다. 『동국이상국집』은 고려 후기에 간행된 문인 이규보의 문집이다. 여기에 수록된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은 1237년에 작성된 것으로, 초조대장경이 부인사에 소장되었다가 소실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수원 창성사 진각국사비명」은 고려 우왕 12년(1386)에 건립된 眞覺國師 千熙의 비석으로 그가 부인사에 주석하였음을 전한다. 또한 『동문선』은 1478년 조선 성종의 명으로 徐居正 등이 편찬한 것인데, 여기에 수록된 「送華嚴宗師友雲詩序」는 고려 말 정도전(1342~98)이 지은 것이다.

『慕堂集』은 조선 중기의 학자 孫處訥(1553~1634)의 문집으로 符仁寺란 명칭을 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의 자료에서 나타난 符仁寺란 모두 ‘팔공산의 부인사’를 말하며, 고려 당대에는 符仁寺의 표기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30) 許興植,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p.251.

31) 통진대사 경보는 신라 경문왕 9년(869)에 출생하여 어느 시기 夫仁山寺로 출가하고, 18세 되던 해에 月遊山 華嚴寺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므로, 880년대에는 夫仁寺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양 옥룡사 통진대사비」가 건립된 것은 고려 광종 9년(958)이다.

‘夫人寺’ 표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 『禪門祖師禮懺儀文』, 『범우고』, 『대구부읍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때 처음 편찬되었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수정되다 중종 25년(1530)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新增’ 두 자를 삽입한 것은 바로 중종 때였다. 『대구부읍지』는 조선 말기인 1832년경에 편찬된 자료로서 비교적 근래의 것이다. 또한 『선문조사예참의문』은 중국과 우리나라 각 조사들의 진영과 예참문을 실은 것으로, 1660년 팔공산 부인사에서 開板하였다. 『범우고』는 1799년 조선 정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사찰지이다. 고금의 문집과 읍지 등을 고증하여 각도에 흩어져 있는 절의 존폐·소재·연혁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夫人寺란 명칭은 문헌자료 상으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등재된 이름이다. 지리지와 불교 관련 자료에서 주로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夫仁寺’는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여지도서』, 『대구부읍지』, 『백불암집』, 『산중일기』, 『대산집』, 『인악집』 등에서 확인된다. 관찬인 『조선왕조실록』, 『여지도서』, 『대구부읍지』에서 등장함이 주목되나 시간적으로 매우 후대의 자료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전제하면서도 앞서의 『대구부읍지』에서 夫人寺라 한 것을 夫仁寺로 고쳐 적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인사의 명칭이 符仁寺에서 夫人寺로, 다시 夫仁寺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한다.

부인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몇 차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1986년에 경북 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고 간행한 『夫人寺地表調査報告書』에서는, 고려시대의 ‘夫人’명 평기와 몇 점이 발견된 사실에서 사원의 명칭을 ‘夫人寺’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고려사』 등의 문헌 기록에는 符仁寺로 나타나지만, 실제 절터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명문자료와 조선시대의 자료에서는 符仁寺가 아닌 ‘夫人寺’ 또는 ‘夫仁寺’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부인사 원 명칭을 夫人寺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부인사지를 1,2차 발굴조사한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는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는 동일 사찰로서 큰 변란, 즉 대흥수와 몽고군 침입에 따른 대

화재 등이 발발하여 사찰이 거의 소실된 후 개창될 때마다 寺名의 한자만 바꾸어 명맥을 유지시켰던 것으로 추측하였다.³²⁾ 부인사의 사명이 처음에 상당 기간 符仁寺로 불리어졌다가 조선시대에 夫人寺로 개명되었으며, 그 이후에 다시 夫仁寺로 불리어졌다고 파악하고, 이처럼 사명의 한자의 표기가 바뀌게 된 것은 홍수, 화재 등 큰 변란에 연유한 것으로 보면서,³³⁾ 처음 명칭을 符仁寺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차 발굴을 담당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부인사의 명칭을 ‘夫人寺’로 환원시켰다. 문헌상에 符仁寺, 夫人寺, 夫仁寺로 표기되고 있으나 명문과 자료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夫人寺金堂” 명 평와³⁴⁾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명문와는 夫人寺로 표기된 것만 출토되었고,³⁵⁾ 조선 후기 명문 와에서 夫仁寺명이 있을 뿐, 符仁寺 명의 유물은 1점도 출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부인사의 명칭을 夫人寺로 확정하는 것이다.³⁶⁾

이처럼 부인사 명칭은 符仁寺와 夫人寺, 夫仁寺가 착종하고 있다. 이를 흔히 볼 수 있는 同音異寫로 다양한 표기의 하나였다고 쉽게 단정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천착이 무의미하다. 현재 남아 있는 통일신라기의 석등, 석탑, 당간지주 등으로 보면, 부인사가 신라시대부터 존

32) 대구대학교 박물관, 『符仁寺址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89, p.89.

33) 대구대학교 박물관, 『符仁寺址 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1, p.3.

34) 경북대학교 박물관, 『夫人寺 3차 발굴조사보고서』, 1993, 표지사진 및 p.77, 93에서 집필자인 최태선은 나말려초로 보았다. 그러나 아래의 글에서 통일신라로 수정하였다.

최태선, 「부인사의 문화(고고)」『자료집 : 부인사의 歷史와 文化』, 2009, p.71.

최태선, 「고고자료로 본 부인사지의 현황과 변화」『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p.210.

35) 경북대학교 박물관, 『부인사 3차 발굴조사보고서』, 1993, p.93.

36) 경북대학교 박물관, 『부인사 3차 발굴조사보고서』, 1993, p.93.

부인사지 출토 명문 와편에 대해서는 최태선, 「부인사의 문화(고고)」『자료집 : 부인사의 歷史와 文化』, 2009, p.71~72의 도표 및 최태선, 「고고자료로 본 부인사지의 현황과 변화」『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pp.210~211 참조. 한편, 최근의 추정 경관고지 발굴에서도 ‘夫人’ ‘夫人寺’명 암기와가 발견되었으나 ‘符仁寺’명 기와는 발견되지 않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 부인사, 『대구 부인사 II(추정 경관고지)』, 2013, p.58.

제한 사찰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 명칭이 문제인 것이다.

1960년대 신라오악 학술조사의 제1차 사업으로 부인사가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인사라고 하면 고려의 초조대장경판을 소장하였다가 蒙古亂으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八公山 夫人寺’라고 하여 어엿한 대웅전이 있고, 傳稱 선덕여왕상이라고 하는 초상화(鄭鐘汝 筆)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³⁷⁾라고 하였다. 1960년대 당시에도 사원의 명칭이 夫人寺로 불려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원 입구의 거대한 표지석에는 ‘符仁寺’로 명기되어 있다. 사찰 경내의 유적 안내판은 ‘符仁寺’로 썼다가 최근에 와서 ‘夫人寺’로 수정하였다.

사원의 명칭에는 역사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사원의 이름이 ‘符仁’이나 ‘夫仁’이라면 그 의미가 매우 궁색하다. 표기상 별다른 뜻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라 대찰의 명칭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신라시대 부인사의 한자 명칭은 ‘符仁寺’나 ‘夫仁寺’라기 보다는 ‘夫人寺’라고 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夫人寺’라고만 하는 것도 뭔가 허전하다. ‘부인’이란 단어만으로는 막연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 좀 더 세밀히 검토하기로 하자.

Ⅲ. ‘夫人’ 호칭의 사용과 創寺 시기

신라시대 팔공산 부인사의 처음 한자 표기는 符仁寺나 夫仁寺가 아니라 ‘夫人寺’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먼저 夫人寺는 ‘夫人’을 위한 사찰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사원의 창건 경위나 시기까지 밝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부인’은 어떤 의미일까?

‘夫人’에 대한 사전적 해석은 諸侯의 正妻, 皇后 또는 王后, 천자의 後宮,

37) 秦弘燮, 「八公山 符仁寺址의 調査(新羅五岳調査記 其一)」『考古美術』 53, 1964.

命婦에 내리던 封號, 결혼한 여성에 대한 존칭, 아내 등등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인사 명칭에 담긴 ‘부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제기되었다. 먼저 신라 善德女王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부인사가 선덕여왕 때에 창건되었다는 寺傳이 있고, 또 선덕여왕의 廟가 있고, 그 안에 선덕여왕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보름에 善德祭를 지내는 것을 볼 때, 부인이란 선덕여왕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인사는 선덕여왕의 원당이었던 듯하다고 추정하였다.³⁸⁾ 그러나 뒤에는 부인사가 선덕여왕의 母后 摩耶夫人(眞平王의 妃)의 원당이라고 하여 견해를 수정하였다.³⁹⁾

신라시대에 여왕을 夫人이라 부르지 않았다. 왕비를 夫人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夫人이 모두 왕비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부인사를 여왕의 원당이나 왕비의 원당으로 단정하긴 힘들다. 선덕여왕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원당이라고 할 경우에도, 진평왕의 왕비인 마야부인의 원당을 왕경이 아닌 이곳 팔공산에 세운 이유가 분명치 않다.

부인은 왕실 및 귀족 여성에 대한 칭호였다.⁴⁰⁾ 이를 책봉한 사례는 문헌 자료에서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 (1) 美海는 바다를 건너와 강구려에게 먼저 나라에 알리게 하였다. [놀지]왕은 놀랍고도 기뻐 백관에게 명하여 굴혈역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왕이 친아우 寶海와 함께 南郊에서 맞이하여 대궐로 들어가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사면령을 내렸으며, [堤上의] 妻를 책봉하여 國大夫人으로 삼고, 그의 딸을 美海公의 夫人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나물왕 김제상)
- (2) 봄 2월에 일길찬 金欽運의 少女를 맞아들여 夫人으로 삼았다. (중략) 5월 7일에 이찬 文穎과 愷元을 그 집에 보내 책봉하여 夫人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3년조)
- (3) 金庾信의 妻를 封하여 夫人으로 삼고, 해마다 곡식 1천 석을 주었다. (『삼

38) 문경현, 「팔공산과 불교」 『八公山：八公山史蹟地表調査報告書』, 1987, p.238.

39) 문경현, 「팔공산의 불교」 『八公山：續集』, 1991, p.92.

40) 신라시대 왕실여성 칭호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현주, 「신라 왕실여성의 칭호변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3 참조.

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1년 추8월조)

(4) 金氏 집안(宗)의 財買夫人이 죽자 靑淵上谷에 장사지내고, 이로 인해 財買
谷이라 이름 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유신)

실성왕대에 나물왕의 두 동생 보해와 미해는 각각 고구려와 왜에 볼모되었다. 나물왕의 장남인 눌지왕이 즉위하여 제상의 도움을 받아 두 동생 보해와 미해를 구출하였다. 고구려에 인질로 머물렀던 보해는 쉽게 귀국시켰지만, 왜에 억류된 미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제상이 미해를 탈출하게 한 뒤 왜국에서 죽자, 눌지왕은 제상의 아내를 ‘國大夫人’으로 책봉하였다. 통일 후 신문왕은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夫人’으로 삼았고, 성덕왕은 김유신이 죽은 뒤에 그의 처를 ‘夫人’으로 삼고 해마다 곡식 1천 석을 내렸다. 또한 김유신 가문의 종녀 재매부인이 죽자 청연 상곡에 장례를 치르고 그 골짜기를 재매곡이라 하였다.

신문왕은 즉위 후 김흠운의 딸을 맞이하여 ‘夫人’으로 삼았다. 재위 3년 2월에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나, 부인 책봉일은 5월 7일이었다. 이로 보면 2월에는 부인으로 삼기로 예정하였고, 실제 책봉은 5월 7일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김유신의 아내는 김유신이 죽은 뒤 39년이나 지나 부인에 책봉되었고, 재매부인은 김유신의 종녀였다. 이를 보면 신라에서 夫人을 책봉하는 데는 일정한 제도와 형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눌지왕대 國大夫人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外命婦 제도의 기원은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外命婦 제도까지 존재하였는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라시대에는 왕비를 비롯하여 귀족·관료의 아내까지 부인이란 칭호를 널리 사용하였다. 금석문에 나타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¹⁾

(1) 夫人帶 (「황남대총 북분 출토 銀製鈐帶」)

(2)-① 作食人

41)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아세아문화사, 1984, p.361.

榮知智 壹吉干支 妻 居知尸奚夫人

眞穴智 沙干支 妻 阿兮牟弘夫人 (「울주 川前里書石」 原銘[乙巳銘], 525)

② 作食人

眞穴知 波玵干支 婦 阿兮牟呼夫人

尒夫知 居伐干支 婦 一利等次夫人

居礼次 △干支 婦 沙爻功夫人

分共作之 (동상, 追銘[己未銘], 539)

乙丑年九月中 沙喙部 于西△夫智 波玵干支 妻 夫人阿刀郎女 (동상, 을축명, 645년 추정)

(3) 亡妣 官肖里夫人 年六十六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之 (「경주 감산사미륵상조상기」, 719)

(4) 旦越 有休大舍宅夫人 休道里 (「평창 上院寺鍾」, 725)

(5) 誓內時寺聞賜主信廣夫人君 (「양양 禪林院鍾」, 804)

(6) (대궐을) 하직하고 돌아갈 무렵에 특별히 좋은 인연을 맺었다. 그때 女弟子 明瑤夫人이 있었는데, 신라의 宗枝이자 鳩林(왕경)의 冠族이었다. 높은 산을 우러르듯 대사를 떠받들고 불교의 이치를 존숭하였는데, 石南山寺를 받아 거두어 길이 주석할 것을 청하였다. (「봉화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夫人帶’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 꾸미개에 새겨진 명문이다. 무덤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중반에서 중후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남분의 피장자가 남성, 북분의 피장자가 여성으로 추정되므로, 부인대의 ‘부인’이란 이를 착용한 왕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고기나 그 이후의 금석문에서는 ‘夫人’ 칭호가 왕의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울주천진리서석에서 525년에 작성된 원명에서는 7등인 榮知智 壹吉干支와 8등인 眞穴智 沙干支의 妻에게, 539년에 작성된 동 추명에서는 4등인 眞穴智 波玵干支와 9등인 尒夫智 居伐干支의 婦에게, 또 645년으로 추정되는 을축명에서는 于西△夫智 彼(波)玵干支의 처에게 각각 ‘夫人’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파진간지의 관등을 가진 인물들은 진골임이 분명하고, 진육지의 경우는 원명에서 사간지였지만 추명에서 파진간지로 승진하여 진

골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인물들은 진골 여부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들 또한 진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삼국시대의 부인 칭호는 대체로 왕비나 혼인한 진골귀족 여성에게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6두품 이하 신분에게도 부인 칭호가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감산사 미륵상조상기는 통일 후인 성덕왕 18년(719)에 조성된 것이다. 주인공인 중아찬 金志誠은 719년 2월 15일, 돌아가신 아버지 仁章 一吉滄과 돌아가신 어머니 觀肖里를 위하여 감산사를 창건하고, 석조 아미타상 1구와 석조 미륵상 1구를 조성하였다. 어머니 관초리 부인이 66세에 죽어 고인이 되자 동해 바닷가에 유골을 뿌렸다고 한다. 중아찬 김지성은 진골 아님 6두품으로 추정되거나와,⁴²⁾ 그의 어머니에게도 부인 칭호를 사용하였다. 김지성의 아버지 인장 일길찬도 6두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부인 칭호가 진골만이 아니라 6두품 귀족의 처에게도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부인 칭호의 사용이 중아찬이란 관등을 소유한 데에 이유가 있었는 지도 알 수 없다.

평창 상원사종은 성덕왕 24년(725)에 만들어진 것이다. 경북 안동 樓門에 걸려 있던 것을 1469년에 왕명으로 옮긴 것으로, 원 소재지를 알 수 없다. ‘有休大舍宅夫人 休道里’에서 有休大舍宅은 有休란 인명을 가진 大舍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사를 관직(3등관)이나 관등(12등)으로 본다면 낮은 하급 관료의 아내에게도 부인 칭호를 사용한 셈이 된다. 그러나 休道里 夫人이 단 월로 참가하여 종을 완성한 것으로 보아 有休大舍宅의 경제력은 만만치 않았던 듯하다.

또한 신분은 잘 알 수 없지만, 804년 선림원종을 제작할 때 서원을 들은 信廣夫人도 있었다. 그녀에게 준칭접미사 君을 붙인 것으로 보면 진골귀족 출신이 아닐까 한다. 한편, 신덕왕대의 明瑤夫人은 신라의 종지이자 왕경의 관족으로 낭공대사 行寂에게 석남산사에 거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 보아 그녀 또한 진골 귀족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통일 전이나 통일 후 신라에서 사용된 부인 칭호를 살펴보면, 부인

42) 邊太燮, 「新羅 官等の 性格」『歷史教育』 1, 1956, pp.62~66.

은 거의 진골귀족 여인에게 허락한 칭호임을 살필 수 있다. 다시 말해 처음 부인 칭호는 혼인한 진골귀족 여성에 대한 존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지성 부자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점차 6두품 일부에게도 부인 호칭이 허용되었던 듯하다. 나아가 김유신의 부인이 김유신의 사후 39년 지나 부인으로 봉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인 책봉에는 제도화된 일정한 형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부인사의 명칭인 ‘부인’ 칭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인사란 일반적인 여성들이 사용한 칭호라기보다는, 특정한 귀족 여성을 지칭한다고 파악되었다. 그것도 대부분 왕실이나 진골귀족 등 고위 신분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夫人寺의 ‘夫人’도 고위 진골귀족 여성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겠다.

이와 아울러서 부인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부인사에 대해서는 善德女王代 창건⁴³⁾ 설과 통일신라시대인 聖德王代 창건⁴⁴⁾ 설이 제기되어 있다. 현재 부인사에서는 선덕여왕대 창건 설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2008년에 건립된 「八公山護國大道場符仁寺事蹟碑」에서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선덕여왕대 창건 설은 寺傳에 따른 것으로, 구전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적비의 내용도 부인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선덕왕대 창건 설은 신빙성은 낮다고 하겠다.

성덕왕대 창건 설은 조선 정조 23년(1799)에 편찬된 『범우고』와 1832년 경 편찬된 『대구부읍지』, 1895년 무렵 편찬된 『대구부읍지』 등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부인사가 성덕왕에 의해 창건되어 일명 大伽藍이라 불렀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물론 후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43) 문경현, 「팔공산과 불교」 『八公山：八公山史蹟地表調査報告書』, 1987, p.238.

문경현, 「팔공산의 불교」 『八公山：續集』, 1991, p.92.

김상영, 「부인사의 역사(문헌)」 『자료집：부인사의 歷史와 文化』, 2009, p.12, 128.

44) 김운곤, 「大邱 符仁寺藏 高麗大藏經板과 그 특성」 『民族文化論叢』 39, 2008, p.449.
정동락,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 『民族文化論叢』 39, 2008, p.517.
김운곤은 처음 선덕여왕대 창건설을 따랐으나(김운곤,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p.106) 견해를 수정하였다.

부인사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기와편들은 모두 삼국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이었으므로, 부인사의 창건은 성덕왕대 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⁴⁵⁾ 더구나 후술할 부인사의 처음 이름이 ‘智炤夫人寺’라면 성덕왕대 창건 설은 한층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IV. 성덕왕대 ‘夫人寺’ 창건의 배경

팔공산 부인사의 옳은 표기는 ‘夫人寺’이며, 성덕왕대에 창건된 사원임을 밝혀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夫人’은 누구일까? 사원을 창건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인이란 구체적으로는 ‘△△夫人’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두 글자를 알 수 없음이 유감이지만, 필자는 △△夫人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3째 딸로, 김유신의 처가 된 智炤夫人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소부인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 (1) 金庾信의 妻를 封하여 夫人으로 삼고, 해마다 곡식 1천 석을 주었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1년 추8월조)
- (2) 아내 智炤夫人은 태종대왕의 셋째 딸이었다. (중략) 후에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거친 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이때 [성덕]대왕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지금 중앙과 지방이 편안하고, 군신이 배개를 높이 베고 근심이 없는 것은 곧 태대각간의 공이니, 생각건대 부인이 집안을 잘 다스리어 조심하고 훈계함이 짝하여 숨은 공이 컸으므로, 과인이 그 덕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일찍이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소. 南城의 租를 매년 1천 석씩 주겠소.” 후에 흥덕대왕이 공을 봉하여 興武大王으로 책봉하였다. (『삼국사기

45) 필자는 『범우고』, 『대구부읍지』 등의 기록을 주목하여 성덕왕대 부인사 창건 설에 유의하면서도 왕실 귀족의 원당 사원 확산이라는 점에서 중대보다 하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李泳鎬, 「大邱地域의 古代佛教 -八公山을 중심으로-」 『尙州文化研究』 13, 2004, p.58). 그러나 이는 수정한다.

』 권43, 열전 김유신 하)

김유신의 처는 성덕왕 11년 부인 책봉과 동시에 매년 1천 석의 벼를 받았다고 한다. 김유신의 처가 비구니가 된 것이 1천 석의 곡식을 받기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궁금하다. 부인으로 책봉하고 1천 석의 곡식을 매년 주었다면 출가 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인 책봉이 이례적으로 늦은 것을 보면, 출가 후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 지소부인은 김유신 사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 부인에 책봉되었고, 비구니가 된 것 또한 그 말년의 일이었을 것이다. 부인사는 성덕왕이 창건하였으므로 지소부인이 부인에 책봉된 시기와 일치한다. 지소부인이 출가하여 머문 사찰을 팔공산 부인사라고 한다면, 부인사의 처음 이름은 智炤夫人寺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제 이를 방증하기 위해 주요 사원의 처음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法興王이 (중략)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불교를 널리 폈다. 眞興王이 [그의] 덕행을 이은 성군이었기에 왕위를 이어 임금(九五)의 자리에 처하여 위엄으로 百僚를 통솔하니 호령이 다 갖추어 졌으므로 大王興輪寺로 賜額하였다.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위촉명신)
- (2) 檢校使는 兵部令으로 殿中令 司馭府令 監四天王寺府令과 檢校眞智大王寺使를 겸한 上相 大角干 臣 金邕 (『聖德大王神鍾銘』 『역주 한국고대금석문(III)』, p.388)
- (3) 顯德 원년(954) 7월 15일에 이 큰 비석을 太子山에 세우니 진정 좋은 인연이 있어서인가 보다. (『奉化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後記』 『한국금석전문(중세 상)』, p.363)
- (4)-① 金官 虎溪寺 婆娑石塔은 옛날 이 고을이 金官國이었을 때 世祖 首露王의 妃 許皇后 黃玉이 東漢 건무 24년 무신(48)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중략)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452)에 이르러 그곳에 절을 두었다. 또 王后寺를 창건하여 지금까지 복을 빌고 있다. (『삼국유사』 권3, 탑상4, 金官城婆娑石塔)
- ② 元君의 8대손인 金鍾王은 부지런히 정치를 했고, 또 진리를 매우 숭상

하여 世祖의 어머니 許皇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元嘉 29년 임진(452)에 元君과 皇后가 혼인한 곳에 절을 창건하여 이름을 王后寺라 하였다.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③ 銓知王은 金銓王이라고도 한다. 元嘉 28년(451)에 즉위하고, 다음 해 世祖와 許黃玉 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후가] 처음 世祖와 결합한 곳에 절을 창건하여 王后寺라 하고, 田 10결을 施納하여 [경비로] 충당하게 하였다. (『삼국유사』 권2, 가락국기)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사원을 창건하고 새 절의 주지가 되어 불교를 널리 전파하였다. 진흥왕이 왕위를 이어 받아 이 절에 大王興輪寺라 사액하였다. 그러나 법흥왕이 창건할 당시의 이름은 ‘法興大王寺’ 또는 ‘法興大王興輪寺’였을 것이다. 이것이 大王寺 또는 大王興輪寺로 바뀌었고, 뒤에는 興輪寺로 정착되었다고 이해된다.⁴⁶⁾

해공왕 7년(771)의 사실을 전하는 성덕대왕신종 명문에 檢校眞智大王寺使가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는 봉덕사성전의 장관인 김옹이 병부령으로 眞智大王寺成典의 장관(檢校使)도 겸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有唐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의 細註 복원을 통해 奉恩寺가 眞智大王의 追福之所로서 건립되었으며, 眞智大王寺가 奉恩寺의 처음 명칭이었음이 밝혀졌다.⁴⁷⁾ 이는 사원을 완성한 후 사원의 명칭을 새로 지은 사례가 될 것이다.⁴⁸⁾

한편, 「新羅國故兩朝國師教誡朗空大師白月棲雲塔碑銘」은 고려 광종 5년

46) 울주 천전리서석 갑인명의 ‘甲寅 大王寺中 安藏 許作’(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韓國古代金石文(II)』, 1992, p.168), 흥륜사지(현 경주공고) 출토 ‘王興’명 기와명문(국립경주박물관, 『경주공업고등학교내 유구수습조사』, 2011, 도판 및 p.70) 등도 같은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는 [法興]大王寺, 후자는 [大]王興[輪寺] 또는 [△△大]王興[輪寺]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47)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 43, 1883, p.86. 李泳鎬,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4, 1994 ; 『신라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2014, pp.329~330.

48) 경주 황복사지에서 출토된 비편에서 [奉]德太宗寺가 奉德寺로, [奉]聖神忠寺가 奉聖寺로 정착되었다면(윤선대, 「신라 사원성전과 금하신」 『한국사연구』 108, 2002) 이 또한 초창기 봉사대상을 밝힌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954) 7월 15일에 건립된 것이다. 이는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것으로 「奉化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로 널리 알려져 있다.⁴⁹⁾ 낭공대사의 입적 후 태자산에 비석을 세웠다고 하였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태자산 태자사에 비석을 세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적인선사 혜철이 출가한 浮石山,⁵⁰⁾ 낭혜화상 무염이 석등대덕에게 화엄을 배웠다는 浮石山,⁵¹⁾ 지증대사 도현이 就學하였다는 浮石山⁵²⁾ 등은 모두 영주의 浮石寺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太子山’과 ‘太子寺’라는 이름이다. ‘태자’라는 명칭으로 보아 이는 어느 태자와 관련하여 생겨난 이름일 것이다.⁵³⁾ 따라서 太子山의 처음 이름은 ‘△△太子山’, 太子寺의 처음 이름은 ‘△△太子寺’로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 사찰에 등장하는 ‘△△태자’란 도대체 누구일까? 비석의 건립시기를 고려하면, 954년 이전의 어느 태자가 되어야 한다. 태자사란 ‘△△태자’의 복을 빌기 위해 창건된 사원일 것이지만, 기왕의 사찰을 개명하여 태자사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⁴⁾

태자사는 경상북도 봉화 太子山에 세워진 사원이었다.⁵⁵⁾ 태자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호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1964년부터 실시한 신라오악학술조사단의 조사에서는 안동시 도산면 太子洞(里)의 폐사지를 그곳으로 추정하였다.⁵⁶⁾ 봉화군 명호면과 안동시 도산면은 서로 붙어 있는데, 보고자인 진

49)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p.364.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1919, p.181.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1996, p.202.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아세아문화사, 1984, p.357.

5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大安寺 寂忍禪師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 1919, p.35.

51) 위의 책, p.102.

52) 위의 책, p.186.

53) 중국 遼寧省 遼河 수계에 속하는 太子河는, 燕 나라의 태자 姬丹이 자객 荊軻를 보내 진왕(후의 시황제)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자, 요동에서 도망쳐 이 강에 몸을 던져 죽은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타이쯔허(太子河).

54) 「有唐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에서 鵠寺가 崇福寺로 바뀐 사례가 참고 된다.

55) 『태종실록』 태종 7년 12월조의 ‘奉化 太子寺’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봉화현 佛宇 조의 太子寺. 『범우고』 奉化 太子寺 등 참고.

홍섭은 행정구역의 변경 결과인지 안동군(시)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안동시 도산면 太子里의 폐사지가 태자사로 불린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전한다. 태자리는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왔을 때 태자가 머물러서 붙여진 이름이라거나, 신라의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갈 때 이곳에 머물러서 태자리라 하였다는 설, 그리고 왕이 불공을 드려 태자를 낳고 太子寺라는 절을 지었으므로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그것이다.⁵⁷⁾ 여기서 고려 말의 공민왕과 관련시키거나 막연히 어떤 왕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취하기 어렵다. 시대가 맞지 않거나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의태자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비록 설화라 하더라도, 시대가 부합하고 역사적 배경도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북 북부 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금강산 일대에 많이 남아 있는 마의태자 전설은 나름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신라 말 경순왕의 태자 麻衣太子를 주목하여 태자사란 곧 ‘麻衣太子寺’로서, 마의태자의 원당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⁵⁸⁾

다음은 가야 지역의 사찰이다. 금관국 질지왕은 수로왕비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452년에 시조와 허황후가 만나서 혼인한 곳에 절을 짓고 이름을 王后寺라고 하였다. 그러나 금관국의 왕후가 한 명이 아닐 것이므로 왕후사라고만 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아마 王后寺의 처음 이름은 ‘許王后寺’ 혹은 ‘許黃玉王后寺’였을 것이다. 그것이 뒤에 王后寺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⁵⁹⁾

56) 진홍섭, 「제18화 : 金石文 三題」 『默齋閑話』, 대원사, 1999, pp.190~191.

57) 경상북도교육연구원, 『慶尙北道地名由來總覽』,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p.29 1 및 안동시, 『디지털 안동문화대전(http://andong.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태자리(太子里).

58)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치려하자 이에 반대하던 마의태자는 皆骨山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순왕 9년조 및 『삼국유사』 권2, 기이2, 김부대왕.

59) 물론 이 경우에도 ‘王后’란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사원 창건 시에는 명복을 비는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따라서 부인사의 처음 이름은 ‘△△夫人寺’였으며, ‘△△夫人’이란 바로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3녀요 김유신의 처였던 智炤夫人이라 추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녀는 태종무열왕 2년(655)에 61세였던 김유신과 혼인하였다.⁶⁰⁾ 문무왕 13년(673)에 김유신이 79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 성덕왕 11년(712) 夫人으로 책봉되어 해마다 곡식 1천 석을 받았다.⁶¹⁾ 이 무렵 그녀는 머리를 깎고 거친 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고⁶²⁾ 정리할 수 있다.

사원의 이름이 夫人寺, 符仁寺, 夫仁寺 등으로 표기상 혼란이 일어난 것은 시대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창건 당시에는 智炤夫人寺였으나, 완성된 후에는 夫人寺로 불렸고, 신라 말기나 고려 초기에는 존재 가치가 약화되면서 일시 夫仁寺로 불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⁶³⁾ 고려시대에 들어가서는 아예 지소부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符仁寺로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符仁寺 대신 夫人寺나 夫仁寺로 불려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원래의 명칭인 夫人寺란 이름이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불문하고 연면히 이어졌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지소부인이 왕경을 떠나 팔공산 자락 부인사에 머물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소부인이 왕경을 떠나거나 지방인 팔공산 자락에 사원이 창건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다음의 사료이다.

(金庾信의) 嫡孫 允中이 聖德大王 때 벼슬하여 大阿湊이 되고 여러 번 恩顧를 입었는데, 왕의 親屬들이 대단히 질투했다. 때는 中秋의 望日, 왕이 月城 峯頭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며 시종관들과 주연을 베풀고 즐기면서 允中을 부르

6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2년 동10월조 및 동 권43, 열전 김유신 하.

6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1년 추8월조.

62) 『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 하.

63) 앞서 살핀 「광양 옥룡사통진대사비」의 夫仁山寺가 팔공산 夫人寺이고, 신라시대의 명칭을 전하는 것이라면, 신라 말에 원당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고려 초의 명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하였다. 諫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지금 宗室·戚里에 어찌 好人이 없겠습니까. 유독 疎遠한 신하를 부르니 어찌 이른 바 친한 이를 친하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지금 과인이 경들과 더불어 平安無事하게 지내는 것은 윤중의 조부의 덕이다. 만일 公의 말과 같이 하여 있어버린다면, 善한 이를 善히 하여 자손에게 미치게 하는 의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윤중에게 가까운 자리를 주어 앉게 하고 그 조부의 평생의 일을 말하기도 하였다. 날이 저물어 윤중이 돌아가기를 고하니 絶影山의 馬 한 필을 하사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불만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 하)

성덕왕대 김유신의 적손 윤중이 대아찬이 되어 여러 번 은고를 입자 왕의 친속들이 대단히 질투하였다. 친속이란 종실척리로 불리는 세력으로, 국왕 측근의 친인척을 말할 것이다. 당시 윤중이 소원한 신하였으며, 성덕왕을 섬겨 겨우 대아찬을 받았는데도 질투하였다는 것을 보면, 김유신계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⁶⁴⁾ 김유신 사후 지소부인이 왕경을 피해 팔공산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비구니가 된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덕왕은 윤중에 대한 배려와 함께 비구니가 된 지소부인을 위해 부인사를 창건하였다.

부인사가 왕경이 아닌 팔공산에 건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유신의 행적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다. 그는 17세 때인 진평왕 33년(611),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의분에 넘쳐 홀로 中嶽 石岬에⁶⁵⁾ 들어가 수도하였다. 그러던 중 難勝이란 한 노인으로부터 삼국통일의 비법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김유신이 일찍부터 중악인 팔공산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팔공산 일대가 김유신 세력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⁶⁶⁾ 선덕여왕 16

64) 이기백, 「신라 집사부의 성립」 『진단학보』 25, 6, 7합병호, 1964 ; 『신라정치사연구』, 일조각 1974, pp.163~164.

65) 여기서 말하는 중악이 팔공산임을 文暲鉉, 「所謂 中岳石岬에 대하여」 『東洋文化研究』 7, 경북대, 1980 ; 『新羅史研究』, 경북대학교출판부, 1983 참조.

66) 이영호, 「신라의 달구벌 천도」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2014, p.410.

년(647) 상대등인 비담과 염종이 女主不能善理를 기치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군이 반란군의 위세에 눌려 위기에 처하였으나 신속히 이를 진압한 이가 김유신이었다. 당시 그가 팔공산이 소속된 압량주 군주로 재임한 사실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因惠는 신라 통일기 중약 팔공산에서 활동한 승려로, 김유신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었다. 김유신이 일찍이 한 老居士와 교분이 두터웠는데, 김유신의 친척 金秀天이 오랫동안 악질에 걸렸으므로 거사를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마침 金秀天의 친구인 因惠 스님이 中岳으로부터 찾아와 거사를 보고 모욕하였으므로 거사와 법력 대결이 벌어졌다. 거사에게 진 인혜는 몸이 거꾸로 땅에 박힌 채 밤을 세웠다. 이튿날 김수천이 사람을 보내 김유신에게 알리자, 김유신이 거사로 하여금 풀어 주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인혜는 다시는 자기 재주를 자랑하지 않았다고 한다.⁶⁷⁾

교훈적인 이야기로서, 김유신의 친척인 김수천이나 승려 인혜를 물리친 노거사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김수천의 친구인 인혜가 중약 팔공산에 거주하였으므로, 김유신의 친척인 김수천 또한 중약 또는 그 인근 지역에 연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김유신과 팔공산의 관련성을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셈이다. 다시 말해 성덕왕이 팔공산 자락에 비구니가 된 지소부인을 위해 부인사를 창건한 것은, 이 일대가 김유신의 세력기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보았다.

V. 맺음말

대구를 북쪽에서 감싸고 있는 팔공산은 신라의 명산이다. 토함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등과 함께 신라 오악으로 편제되어 국가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팔공산은 중약으로 불렸고, 불교 관련 유적·유물들이 많이 분포하

67) 『삼국유사』 권5, 神呪6, 密本摧邪.

였다. 이름을 알 수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만 해도 부인사를 비롯하여 동화사, 미리사, 지장사(북지장사), 송림사, 마정계사, 삼랑사 등이 있었다.⁶⁸⁾

부인사의 창건 경위는 잘 알 수 없다. 문헌자료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인사에 남아 있는 유적·유물과 최근 발굴 조사된 자료들을 통해서 신라·고려 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한 동안 대찰로서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부인사가 크게 주목된 것은 고려시대에 초조대장경 봉안과 관련해서였다. 부인사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초조대장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부인사의 처음 명칭과 창건 경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배풀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온 부인사의 창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인사의 명칭은 符仁寺, 夫人寺, 夫人之寺, 夫仁寺, 夫仁山寺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符仁寺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명칭이었고, 夫人寺와 夫仁寺는 조선시대의 자료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사지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사원의 명칭은 줄곧 夫人寺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다만 「광양 옥룡사통진대사비」에 나타난 夫仁山寺는 夫人山寺의 착오이거나 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의 과도기적인 표기로 파악하였다.

夫人寺가 정식 명칭이라고 할 때, 처음 사원의 명칭은 ‘△△夫人寺’로 추정할 수 있었다. 주인공을 밝히기 위해 먼저 ‘부인’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신라시대 금석문에 나타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왕비나 진골귀족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夫人’을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3째 딸로 김유신의 처가 된 ‘智炤夫人’으로 추정해 보았다. 일부에서는 夫人이 여왕을 뜻한다고 하여 선덕여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수긍할 수 없었다. 부인사의 창건시기도 선덕여왕 대보다는 성덕왕대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성덕왕이 지소부인을 기리는 부인사를 팔공산 자락에 건립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지소부인은 말년에 비구니가 되었다. 성덕왕이 재위 11년

68) 李泳鎬, 「大邱地域의 古代佛教 -八公山을 중심으로-」『尙州文化研究』 13, 2004, p.55.

(712)에 김유신의 공을 칭송하며 그녀를 ‘부인’으로 책봉하고 매년 조 1천 석을 하사하였다. 그 선후 사정은 분명치 않지만, 이들은 대략 비슷한 시기의 일로 짐작되었다. 김유신이 화랑 시절 중악석굴에서 수도하였다는가, 팔공산이 소속된 압량주 군주로 재임한 사실, 김유신의 친척 金秀天이 악질에 걸리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간 노거사와 김수천의 친구로 중악의 승려인 인혜의 법력 다툼 등을 통해, 팔공산 지역이 김유신의 세력 기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팔공산 부인사에서 초조대장경을 봉안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주장만이 아니라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대장경이란 국가적 보물을 소장한 사원은 그 사원의 역사적 전통과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재조대장경을 봉안한 가야산 해안사의 경우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부인사가 초조대장경의 봉안처가 된 것은, 경전을 중시하는 화엄종의 대찰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측면, 그리고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로서 김유신의 처가 되었던 지소부인의 복을 비는 원당이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7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가.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輿地圖書』, 『練藜室記述』,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東史綱目』, 『新增東國輿地勝覽』, 『大丘府邑誌』(1832, 『慶尙道邑誌』 소재), 『大丘府邑誌』(1895, 『嶺南邑誌』 소재), 『禪門祖師禮懺儀文』, 『梵字考』, 『山中日記』, 『大山集』, 『慕堂集』, 『百弗巖集』, 『仁嶽集』, 『金剛般若波羅密經』(木板, 海印寺藏),

나. 자료집, 보고서, 도록, 사진

『邑誌 -慶尙道 篇-』(전3권), 아세아문화사, 1982.

『韓國佛教全書』10,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 4(2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1919.

팔공산 부인사·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자료집 : 부인사의 歷史와 文化』, 200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1996.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下), 아세아문화사, 1984.

慶北大學校 博物館, 『夫人寺地表調査報告書』, 1986,

慶北大學校 博物館, 『夫人寺三次發掘調査報告書』, 1993.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 -新羅人の 記錄과 筆跡-』, 200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工業高等學校內 遺構收拾調査』, 2011.

大邱大學校 博物館, 『符仁寺址一次發掘調査報告書』, 1989.

大邱大學校 博物館, 『符仁寺址二次發掘調査報告書』, 1991.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 八公山史蹟地表面調査報告書』, 1987.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 續集』, 1991.

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 부인사, 『대구 부인사 I -추정경관고지-』,

- 2012,
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 부인사, 『대구 부인사 II -추정경관고지-』,
2013.
경북대학교박물관·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대장경, 천년의 염원(2010 박물관 기획전)』,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국립고궁박물관, 『初雕大藏經 : 천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초조대장경 판각 천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2011.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 고려대장경(초조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 특별전)』, 2011.
호림박물관·성보문화재단,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2011.
慶尙北道教育研究院, 『慶尙北道地名由來總覽』, 慶尙北道教育委員會, 1984.
안동시, 『디지털 안동문화대전(<http://andong.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인사(符仁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타이즈허(太子河), 2016.12.12.

다. 단행본

- 김윤곤,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文暻鉉, 『新羅史研究』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3.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진홍섭, 『默齋閑話』, 대원사, 1999.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라. 논문

- 김윤곤, 「大邱 符仁寺藏 高麗大藏經板과 그 특성 -『佛名經』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39, 영남대, 2008.
남권희, 「南禪寺 初彫大藏經의 書誌의 分析」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문경현,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 『佛教와 歷史』(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한국불교연구원, 1991.
邊太燮, 「新羅 官等の 性格」 『歷史教育』 1 1956

- 윤선태, 「新羅 寺院成典과 衿荷臣」『韓國史研究』 108, 2002.
- 윤용혁, 「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李能和, 「佛敎와 朝鮮文化」『별건곤』 제12·13호, 1928.
- 李泳鎬, 「新羅 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韓國史研究』 43, 1983.
- 李泳鎬, 「大邱地域의 古代佛敎 -八公山을 중심으로-」『尙州文化研究』 13, 2004.
- 이현주, 「신라 왕실여성의 칭호변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정동락, 「신라·고려시대 符仁寺의 변천과 현실대응」『民族文化論叢』 39, 2008.
- 鄭永鎬, 「八公山 符仁寺」『考古美術』 5(제1권 5호), 1960.
- 秦弘燮, 「八公山 符仁寺址의 調査(新羅五岳調査記 其一)」『考古美術』 53(제5권 12호), 1964.
- 최연주, 「符仁寺藏 『高麗大藏經』의 호칭과 조성」『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최연주, 「고려시대 『金剛般若波羅密經』 彫成 현황과 書誌의 성격」『石堂論叢』 61,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5.
- 崔永好, 「1214년에 조성된 해인사 소장 『金剛般若波羅蜜經』의 역사·문화적 성격」『石堂論叢』 61,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5.
- 최정환, 「총론: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최태선, 「고고자료로 본 부인사지의 현황과 변화」『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한기문, 「고려전기 부인사의 위상과 初彫大藏經의 소장 배경」『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마. 학술대회 자료집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33차 전국학술대회, 『符仁寺藏 高麗大藏經의 再照明 -2011년 세계인의 육상축제와 함께하는 대구의 문화유산-』, 2008.5.30.
- 한국중세사학회·팔공산 부인사 공동학술회의,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 2009.9.11.
- (재)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개최, 경남발전연구원 주관,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천년 고려대장경, 그 가치의 재발견』, 2010.11.19.
-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大藏經 :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I·II, 2011.6.27~28.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Buin-sa Temple in the Palgong-san Mountain

Lee, Young-ho

This study seeks to examine some significant, yet neglected issues over the foundation of the Buin-sa temple. With a historic background, Buin-sa is located on the slope of the Palgong-san mountain representing mountains in Daegu. It has existed from the Silla period and, together with the Donghwa-sa temple, stands for Buddhist temples scattered in the Palgong-san area. Because of virtual absence of historical records,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Buin-sa have been unknown. But some historical remains and relics testify that Buin-sa was a large Buddhist temple not only for the Silla and Goryeo eras but for some length of time in the Joseon period. The temple has become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because it stored 6,000-volume wood-blocks for the printed Tripitaka completed in 1087. The study of the temple has thus focused for the most part on the first set of the wood-block print editions of Buddhist scriptures. As a result, its original name and circumstances over its foundation have not become of a matter of primary concern.

The name of Buin-sa has had several different meanings in Chinese characters. But some historical records, epigraphic records, and inscriptions engraved on roof-tile pieces show that its exact meaning

was the “lady [buin] temple.” If the name “lady temple” was used in the Silla period, its original name might have been understood as the “temple of lady xx.” This study infers that the temple may have been the Buddhist sanctum for prayer of lady Jiso, the third daughter of King Muyeol as well as the wife of General Kim Yushin. Lady Jiso became a Buddhist nun in her later years and was invested with the title of “lady” by King Seongdeok. This demonstrates that the Buin-sa temple may have been founded in the reign of King Seongdeok. Also the fact that it was established on the slope of Palgong-san means that the mountain area might be one of Kim Yushin's power bases.

key words : Lady, Buin-sa temple, King Seongdeok, Lady Jiso, Tripitaka completed in 1087, Palgong-san Mountain